

## 기후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2026년 조류독소 공동조사 수행

-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원수 중, 공기 중, 비강 내 조류독소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시민사회(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와 협력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조사는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작년 공동조사(9월)보다 확대\*된 규모로 더 이른 시기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조사항목 또한 작년 환경중(원수 중, 공기 중) 조사에 더해 주민 비강 내 조사가 추가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민사회는 올해 초부터 공동조사 규모, 시기 및 항목을 협의해 왔고, 6월 12일에는 함께 낙동강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조사지점 및 방법을 협의하여 확정 지었다.

\* (원수 중) '25년 5개 지점, 각 4회 → '26년 10개 지점, 각 16회

(공기 중) '25년 5개 지점, 각 4회 → '26년 5개 지점, 각 8회

조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번달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한다.

이번달 12일 공동 현장방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동조사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인 7~8월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채취하는 시료 전량을 분석한다.

기후부와 시민사회는 조사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시료 분석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공동으로 검토한 후 공개한다. 이후에도 기후부와 시민사회는 녹조 관리 등 녹조 대응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2026년 조류독소 공동조사 개요.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문유상 (044-201-7018)
	국립환경과학원 한강통합물환경센터	책임자	센터장	나은혜 (032-560-7470)
		담당자	연구관	박상현 (032-560-7460)



□ **개요**

- (추진배경) '25년 공동조사에 이어 '26년에도 민·관 합동으로 조류독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조류 독소 노출 실태를 확인하고, 녹조 대응 정책 개선에 활용
- (조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및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방법) 원수 중, 공기 중, 비강 내 시료 채취하여 조류독소 분석(LC-MS/MS 방식 활용)

□ **조사계획**

- (원수 중) 10개 지점에서 각 16회씩 시료 채취하여 총 160회 조사

<원수 중 조사지점>

연번	조사지점	위치
1	경천대	상주 사벌국면 삼덕리
2	낙단보	경북 의성군 단밀면
3	강정고령보	대구 달성군 다사읍
4	화원유원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5	국가산단취수장	대구 달성군 구지면
6	합천창녕보	경남 창녕군 이방면
7	남지철교	경남 창녕군 남지읍
8	본포수변생태공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9	대동선착장	경남 김해시 대동면
10	삼락	부산 사상구 삼락동

- (공기 중) 5개 지점에서 각 8회씩 시료 채취하여 총 40회 조사

<공기 중 조사지점>

연번	조사지점	위치
1	강정고령보	대구 달성군 다사읍
2	화원유원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3	남지철교	경남 창녕군 남지읍
4	본포수변생태공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5	대동선착장	경남 김해시 대동면

- (비강 내) 공기 중 조사 지점과 같은 5개 지점에서 총 120명 선정하여 각 3회, 총 360회 조사

※ 비강 내 조사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중